

미래과학교육원, 수학 학습코칭 기본 과정

수학 학습상담 및 코칭으로 학생의 수학 자신감 회복 지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수학 학습코칭 기본 과정, 2026 수학클리닉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총 16시간) 초등교사 40명과 중등 수학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수학 학습 부진이나 수학 불안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연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ZOOM)와 대면 집합 연수(교양, 수원)를 병행해 지역 접근성을 높였다.

연수는 학생의 수학 학습 어려움을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진단·분석하

고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특히, 이론 중심 강의를 지양하고 수학클리닉 진단검사 활용, 학습 상담 및 코칭 실습, 실제 사례 나눔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연수 후에는 연수 이수자를 중심으로 '수학클리닉 전문상담 지원단'을 구성하고 '찾아오는 수학클리닉'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학 학습 상담과 코칭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수학클리닉 직무연수는 연수 이후 학생 상담과 자료 개발까지 연계되는 실천 중심 연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택시 통합면허 발급 긍정 검토 환영"

오산시가 화성시와 택시면허 배분 문제를 놓고 행정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통합면허 발급 논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오산시와 화성시에 택시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각각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결론 대신 통합면허 발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시에 통합면허와 관련한 사무처리 규정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차 회의에서는 사무처리 규정 가운데 서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산시는 사무처리 규정상 기준 차이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로 모범운전자 자격 요건의 경우 오산시는 운전 경력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2년 3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을 위해 화성시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배분되는 신규 택시면허 92대를 두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배분 비율 이견에서 비롯됐다.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는 지난 2018년 신규 면허를 화성시 75%, 오산시 25%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화성시가 이후 90대 10 비율을 요구하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송민수 기자

이천시, 중장년 채용행사 17개 기업 133명

이천시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인생2막 중장년 채용행사'를 19일 시청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격월로 운영해 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중장년층에 특화해 운영하는 첫 시범 사업이다. 시는 1월과 7월을 중장년 집중 채용 기간으로 설정했다.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인력이 지역 산업 현장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직무 중심의 채용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열린다. 단체급식,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 복지,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업이 참여해 약 13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에서 희망 기업과 1대1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이천시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취업 상담과 고용 정책 안내도 제공한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천센터가 참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하고 신용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초·활용 교육 과정도 안내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중장년층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이 지역 산업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교외선 운행 구간 교차로 혼잡 개선

의정부시는 교외선 열차 운행 이후 교차로 정치신호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교외선은 경기북부 동서축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재개통한 광역철도다.

이제 차량을 출발해 양주를 거쳐 대곡역까지 약 30.3km 구간을 왕복 9회(주말 10회) 운행 중이다.

교통 혼잡이 집중되는 서부로 일대는 일평균 통행량이 3만 대 이상이며 교외선 선로와 교차로 간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

이에 차량의 오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진입 전과 통과

시간 동안 모든 신호등을 적색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신촌건널목오거리와 가농삼거리 등 2개 교차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정치신호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하고, 녹양역 일대, 가능초등학교 주변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열차 통과 시 모든 방향의 신호를 적색으로 운영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열차와 차량 간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녹양역·의정부고등학교 방향의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동시에 부여해 서부로의 동행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했다.

송민수 기자

김경희 “2026년은 민선8기 완성의 해…성장·민생 동시 도약”

1조3506억 원 예산 편성…반도체·드론 신성장과 체험형 민생정책 본격화

5대 역점과제로 산업·복지·교통·안전 균형 추진

병오년 신년 기자회견서 반도체·드론·주거·복지 아우른 2026 이천시 시정 청사진 밝혀



김경희 이천시장은 8일 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린 '2026년 이천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은 민선 8기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결실로 완성하는 해"라며,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 '든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도 본예산 1조35,06억 원을 편성했다. 김 시장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을 우선 배치하고, 경성경비 절감과 부진 사업 정비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투자유치와 혁신성장,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확장적이며서도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올해 이천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굴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약 120억 원 규모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이천반도체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연접개발 완료로 확대된 산업단

지 조성 여건을 활용해 대월2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22만㎡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청미천 비행장과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드론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 방산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이천을 드론 산업 중심도시로 키워간다.

중리택지는 4472세대를 수용하는 교육·문화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3개 역세권 개발과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민간 도시개발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노후화된 이천터미널은 2029년까지 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호텔 시설로 재탄생시켜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청년 이룸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자립을 지원하고, 5060 은퇴세대의 사회 재참여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남부권 장애인복지관과 여성비전센터, 어린이드림센터 등 핵심 복지시설을 완성하고, 보훈수당 인상과 통합보훈회관 건립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

대 발굴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우먼브리지 플랫폼'을 통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확충 등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화 과학교과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중리초 개교와 생존수영·디지털 교육 복합시설 조성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이천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지능형 CCTV 확충으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동이천IC와 부발 하이패스IC,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사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푹버스와 희망택시, 통학 순환버스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보장한다.

관고동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6곳, 1128편 규모의 공영 주차타워를 조성해 도심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정수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봉공원과 성호호수, 국제세마경기장,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권 공원과 체육시설을 늘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소고리 매립장은 생태문화공원으로 재생하고, 도시숲과 가로수길 조성도 병행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는 한편, 스마트농업과 친환경 축산을 확대한다. 농촌협약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 농민기회소등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도 도모한다.

김경희 시장은 "2026년은 민선 8기를 정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의 해"라며 "명품 주거, 첨단 산업, 드론 산업,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성장벨트를 통해 이천을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행복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의왕시 '대사중후군 상담실'

연중 운영…무료

의왕시는 시민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대사중후군 상담실'을 연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8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대사중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방치하면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상담실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등 기본 검사를 통해 대사중후군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영양·운동·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 검사와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혈관 탕 탕 밴드 운동 교실'과 '고혈압·당뇨병 교실'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 지원에 주력한다.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지역 보건팀에서 안내한다. 검사받기 위해서는 전날 오후 10시 이후 꼭 금식해야 한다.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1년…세수 136억 증대

수원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1년 만에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 대비 48%p 끌어올리며 총 136억6000만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1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후 시행된 올해 정기분 지방세 징수 결과 세목별로 1월 면허세 3.0%p, 6월 자동차세 6.3%p, 7월 재산세 2.3%p, 8월 주민세 6.5%p, 9월 재산세 2.4%p씩 각각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 마감 전 미납자 17만7000명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집중 발송해 징수율을 8.3%p 높였다. 이를 통해 단일 세목으로 27억원을 추가 징수하며 종이고지에서 중심의 기존 방식보다 압도적인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KT 등 공인전자문서증거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지 시점과 대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고도화해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는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춘 행정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종이 고지서 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비 지원…월 10만원

화성시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도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1인당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달리 미등록 아동은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2025년에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 사업' 협약을 맺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과 공교육 진입 전 조기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민수 기자